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기부금

광주은행이 치매로 인한 실종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했다.(사진)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스마트워치, 스마트태그 등) 4252개 보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의 신발, 가방, 옷 등에 부착해 보호자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유용하다. 또 위급 상황 때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여대 항공과, 티웨이항공 승무원 훈련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5명이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진행된 객실승무원 현장직무교육을 모두 수료하며 실질적 직무 역량을 갖춘 예비 승무원으로 성장했다.(사진)

광주여자대학교는 자교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5명이 최근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실시된 객실승무원 직무교육 과정을 전원 수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제 항공사 훈련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돼 기내 안전 매뉴얼 훈련, 화재 및 비상 대응, 심폐소생술(CPR), 탈출 슬라이드 훈련, 기내 서비스 시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승무원 직무에 필요한 실무 감각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기회를 얻었다.

광주여대는 티웨이항공과의 산학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장 중심 교육과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캠코 광주전남본부, G-JUMP 2기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본부 7층 강당에서 '2025년 G-JUMP 2기 멘토·멘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G-JUMP 2기는 캠코를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 청년특화형 취업 플랫폼이다.

행사에는 지역 대학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8개 기관 현직자 멘토와의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취업 준비와 진로 설계에 대한 조언이 이뤄졌다.

캠코는 오는 25일 '캠코데이'도 개최해 본사 채용담당자가 참석하는 설명회와 직무별 업무 소개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신입 직원들과의 대화, 현직자와 함께하는 도시락 간담회와 함께 취업 특강도 실시해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현실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상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인재의 정보 격차 해소와 취업 준비 지원이 핵심"이라며 "G-JUMP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공업고, 한전KPS 미래인재 장학금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본교 협의실에서 한전KPS로부터 '지역 미래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사진)

17일 광주공업고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한전KPS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광주공업고가 올해 광주형마이스터고에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수여됐다.

광주공업고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선발위원회를 거쳐 10명을 선발했으며,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학생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열린 진로특강에서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한전KPS를 소개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입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안내했다. 또 '전력 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고졸 기술직군에 필요한 역량과 산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신보,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전남신용보증재단은 17일 재단 간부 16명이 참석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실적 점검과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상반기 실적 및 미비사항 점검 △업무효율화와 실행력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행복한 일터 조성 방안 등이며,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춘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남신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단을 구성,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보증을 당초 4500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한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라남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한수공 주암댐지사,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단'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17일 사회적협동조합 에코다움 등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주암댐 상류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 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주암댐 유역 내 하천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대청결 운동과 주민 환경교육 등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보전과 녹조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댐 주변지역 내 중장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채용하여 연간 약 26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초목류 재활용 분리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화목지원으로 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유재일 지사장은 "주암댐은 지난 2011년 이후 조류경보제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사업을 추진하여 댐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운영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이 지역사회 치안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본격 운영에 나선다.(사진)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주제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실천하는 자치치안 프로젝트다.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해당 프로젝트는 전남도내 중·고등학교 9개교가 참여해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경찰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도 함께 운영한다. 지난 15일 순천 세빛중학교를 시작으로 진행된 자치경찰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주제로 현장 중심 소통의 장과 다양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오지현 기자**

동신대-고흥군-(사)마리안느와마가렛, 협약

동신대학교와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협약을 맺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17일 동신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위치한 마리안느와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이주희 동신대 총장, 공영민 고흥군수, 김연준 명예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 계승 및 전파 △배려와 나눔의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한 영향력 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존중, 협동, 나눔,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갈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대 조대연 교수, 라오스서 아카이브 유물 촬영 교육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조대연 교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2개 국립박물관에서 아카이브 유물 촬영 교육을 진행했다.(사진)

17일 광주대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대 협력 업체인 ㈜인디고에서 요청한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조대연 교수는 두 기관의 국립박물관 학예사들에게 디지털 콘텐츠 시각아카이브물(사진, 영상)의 생산과 보존에 관한 실습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시공간의 압축 저장고로서의 사진과 영상에 대한 효과적인 기록에 대해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